

# [전문인칼럼] 관계설계의 공공디자인

승인 2026.03.04 07:00 | 18면



이창기 대전디자인진흥원  
장

아침마다 동네 어린이공원을 지난다.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미끄럼틀이 아니라 벤치에 앉은 어르신들이다. 장기판이 펼쳐져 있고, 유모차보다 지팡이가 더 많다. 공간의 이름은 여전히 '어린이공원'이지만 실제 이용자는 달라졌다. 명칭과 현실 사이에 구조적 간극이 발생한 것이다. 이 장면은 우연한 풍경이 아니다. 인구구조 변화가 공간체계에 반영되지 못한 결과다. 이 변화는 감상의 대상이 아니라 설계의 문제다. 유소년인구는 감소하고 고령인구는 급증하는 사회에서 공공공간의 기능 역시 재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어린이공원은 과거 인구구조를 전제로 한 채 유지되고 있다. 공공공간은 사회적 조건을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다. 인구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공간은 필연적으로 기능적 부조화를 낳는다. 결국 문제는 공원을 존치할 것인가의 여부가 아

니라 누구를 위한 공간으로, 어떤 관계를 형성하도록 설계할 것인가의 문제다. 공공디자인은 장식이 아니라 정책의 언어다. 공간은 사회의 우선순위를 드러내는 물리적 선언이다. 특정 연령을 전제한 공간설계는 이미 변화된 현실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따라서 어린이공원은 '놀이시설의 집합'에서 '생활기반 플랫폼'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공원이라는 개방적 구조는 돌봄, 복지, 문화, 학습 기능을 통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아이가 뛰놀고, 어르신이 걷고, 보호자가 머무르는 구조를 설계하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대응전략이다. 디자인은 관계를 매개하는 사회적 장치다. 세대가 스치기만 해도 상호인식은 축적된다.

미래의 공원은 미관 중심의 공간이 아니라 작동하는 공간이어야 한다. 첫째,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접근 가능한 포용적 구조가 필요하다. 둘째, 아이와 어르신이 자연스럽게 시선을 마주치는 다세대 설계가 요구된다. 셋째, 흙과 나무를 접하는 감각적 요소는 세대 간 공통경험을 형성한다. 넷째, 디지털기술과 신체활동을 결합한 상호작용적 설계는 새로운 참여를 유도한다. 다섯째, 폭염과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그늘, 수목, 바닥재 설계는 공동체의 안전을 확보한다. 기후 적응력은 곧 도시의 생존력이다.

이미 선도 사례는 존재한다. 우리 시 대화동은 CPTED를 적용해 어린이공원을 리모델링함으로써 세대 간 공존이 가능한 안전한 공간을 구현했다. 수원시 연무동은 공원부지 일부를 조정하여 노인회관과 돌봄

기능을 결합했다. 세종과 순천의 참여형 놀이터는 설계단계부터 주민과 아동이 참여하여 공간에 대한 주인의식을 제도화했다.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시설교체가 아니라 관점의 전환이다. 공간을 행정의 관리 대상이 아니라 공동체의 자산으로 인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물론 안전을 이유로 연령별 공간 분리를 주장하는 의견도 존재한다. 그러나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접점을 설계하는 방식은 충분히 가능하다. 결국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설계의 관점이다. 지금까지 연령을 기준으로 공간을 구획해 왔다면, 이제는 관계를 기준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앞으로의 도시는 인구변화를 거부할 수 없다. 그러나 공간은 다시 설계할 수 있다. 어린이공원의 재정의는 고령화 사회에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실험이다. 공공디자인은 단절된 세대를 연결하는 조용한 기술이다. 이름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쓰임을 바꾸는 일이다. 그 전환이 이루어질 때 어린이공원은 특정 세대의 전유물이 아니라 공동체의 교차점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이창기 대전디자인진흥원장

